

# 우여곡절 끝 교문위원장 선출... 갈등 일단 봉합

### 명진 위원장, 겨우 과반 넘겨... 19일 운영위원장 선거도 파행 우려 지역사회 "자리 다툼 끝내고 전제·감시 기능 강화로 신뢰 회복해야"

광주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정인을 교문위원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세 차례나 투표를 반복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정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교문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명진(민주·서구2) 의원에 대한 3차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명 의원은 총 23표 중 12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선거에서 가까스로 14표(무효 6표·기권 3표)를 받아 당선됐다.

앞서 명 의원은 지난 11일 치러진 교문위원장 1, 2차 투표에서 모두 과반 표를 얻지 못했다. 2차 투표 후에도 명 의원은 단독 입후보하면서 '당선될 때까지' 계속 3차 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약속 대련'을 주문하는 공문을 시의원에게 발송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명 의원과 함께 출마한 다른 상임위원장 후보 3명도 겨우 과반을

넘겨 당선됐다.

이처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은 의장 후보 경선과 본투표 과정에서 쌓인 내부 갈등이 주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당선 후보를 사실상 확정해 놓고도, 정작 의원 간 소통 부족과 의장단의 정치력 부재로 인해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무효·기권표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선거 종료에 따라 오는 19일 진행될 운영위원장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거처럼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완료하고, 상임위별로 각 2명씩의 운영위원을 추천·선임했

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희을·이귀순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정다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임·박수기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운·심장욱 의원이다. 이들 8명 중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사회에선 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우려 섞인 말이 쏟아지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의 마지막 단추인 운영위원장 선거마저도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기 내 원 구성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물론 남은 2년 동안 의원 간 대립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교문위원장 투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운영위원장 선거역

시 분열될 가능성이 크며, 의원들이 단합하지 않는다면 운영위원장이 시의회 갈등의 마지막까지 독박을 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운영위원장이 갈등을 증대하고 '의회 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을 최다 득표로 선출시키는 것이 '반쪽짜리 의회'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시기에 자리다툼이 아니라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의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의원들이 사리사욕을 벗어날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도의회 하반기 개원 기념식. 김영록 전남지사(왼쪽 두 번째)가 1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제12대 전남도의회 하반기 개원 행사에서 김대중 도교육감, 김태균 의장, 이광일 부의장, 이철 부의장과 축하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국립의대 용역기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 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 등 의견수렴

전남도가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진대학 선정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진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전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 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 에 따른다.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

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 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우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156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2026년 의대 신설이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는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진정성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부가 전남도 공모의 당 위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전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회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개발 사업 속도

### 1차 중도금 77억원 납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 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 4000만원을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협약이행보증금 116억원과 토지계약금 86억원 납부, 3월 현지법인인 '뉴스타필드광주' 설립과 기본계획(MP)·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이은 후속 조치다.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22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협약을 했다.

2025년 하반기 펜스 설치 등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해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콘도는 2030년, 레지던스와 부대시설은 2033년 완료하는 공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을 함께하는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부 계획이 나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 공직자 12명 재산심사 신고 규정 위반

광주시 재산심사 대상자 상당수가 신고 절차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장 8명, 구의원 69명 등 재산공개 대상 77명을 대상으로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12명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권 가액 입력 오류, 자동차 누락 등 재산 불성실 신고로 6명이 적발돼 과태료(2명), 경고 및 시정조치(3명), 보완 명령(1명)을 받았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도 과태료(2명), 경고 및 시정조치(4명) 처분됐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가액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재산등록 대상자 1698명 중 586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양파·마늘 재해보험금 298억원 지급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파, 마늘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298억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전남도가 2015년 이후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강수량이 10년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하고 일조 시간은 24% 감소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양파 3100ha에서 잎마름과 비대불량 등, 마늘 1700ha에서 일병 발마늘이라 불리는 2차생장 등 피해가

발생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피해현장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험에 가입한 양파 피해 2923농가에 226억원, 마늘 1674농가에 72억원을 지급했다. 시·군별로는 무안군 115억원, 신안군 37억원, 함평군 32억원, 고흥군 11억원, 해남군 11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양파와 마늘 피해 농가에게 이번 재해보험금과는 별도로 농약대 등 약 13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오는 8월 지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